

# 기지가 켜는 봄... 함평 자연생태공원 '손님 맞이'



함평군이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운영하며 생태체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전경. <함평군 제공>

56만㎡ 부지 자연생태과학관, 수서곤충·우리꽃 학습장 등 갖춰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 상시 관람...100여종 양서·파충류 사육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생태체험 손님 맞이하고 있다.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매년 관람객의 인기 속에 운영 중인 함평지역 대표 관광지, 대동면과 신광면 일원에 조성돼 있다. 멸종위기 각종 동·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체험이 가능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원은 크게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 세 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공원은 저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돼 있다. 자연생태공원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멸종위기 각종 동식물 보존 육성을 목표로 56만㎡ 부지에 조성했으며, 자연생태과학관, 다목적전시관, 온실 전시관, 반달가슴곰관찰원, 수서곤충관찰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관찰원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 지정된 반달가슴곰 11마리를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동물원으로 뱀, 악어 등 특색 있는 종을 관람할 수 있으며 악어·아나콘다관, 생태전시관, 거북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00종 411마리(뱀 56마리, 기타 파충류 188마리, 양서류 104마리, 초식동물 63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1·2·3급 33종 62마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삼악어, 늑대거북, 미얀마비단뱀, 수마트라왕도마뱀, 크레스티드게코, 팻테일게코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오셔서 생태체험을 즐기고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시 "대중교통 개편해 운수업체 보조금 절감"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 해명... 소형버스·마을택시 도입해 원가 절감

나주시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올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내버스 대전환을 기치로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과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혁신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는 나주·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면 소재지를 거쳐 자연마을까지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횡수를 늘려 운행하는 대신에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는 15인승 소형버스, 마을택시를 도입해 승객 대기시간은 줄이고 운송 원가는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현재 노선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해 15일간 196건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일부에서 지적한 200억원대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노선 운영,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운수업체 보조금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전라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이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전라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 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대상 금액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 조치 대상인 지선버스 환승보조금, 노선결행 부분의 경우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선버스에 대한 현금 수입금 관리는 시에서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고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개선했다"며 "지난 1월 지급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버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연체로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매년 교부하는 도비 50%를 포함해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강진군 "정약용 선생 유물 찾습니다"

24일까지 유물 공개 구입  
불법 취득·소유 불분명 시 제외

강진 다산박물관이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다양한 학술자료 수집과 전시 유물 확보를 위해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매도유물 희망 참가·신청 자격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유물매도신청서'와 유물 확인이 가능한 '매도신청유물 세부명세서'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담당자가 유물매도희망자에게 개별 연락해 유물 실물 접수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유물매도 신청 기간은 20~24일이며 다산박물관 전시기획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유물 구입과 관련, 소장유물과 중복 또는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구입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국훈 다산박물관장은 "다산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 구입을 통해 다산학을 연구·발전시키고,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다산박물관

## 장성 일손 부족 구원투수 '과수전정단'

과수농가 가지 솜아내기 작업  
군, 숙련도 높은 주민 106명 구성  
3월까지 총 40ha 현장 지원

장성지역에 올해도 농업인 돕는 구원투수 '과수전정단'이 됐다. 장성군은 과수전정단이 지난 1일 삼서면 사과농장을 시작으로 과수 농가 전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까지며 총 40ha 규모로 추진된다. 전정은 과일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를 솜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과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일정 수준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돼 마땅한 전정 인력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로 농가의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 과수전정단을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철저한 이론 교육과 반복적인 실습,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과수전정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1~3기 사과, 감 품목 과수전정단 106명이 일선 농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전정 전문가들이 보니 작업의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정 가격도 시중보다 10~15% 저렴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삼서면 사과농장의 전정 작업을 거두고 있다. <장성군 제공>

1인 1일 기준 사과 18만원, 감 16만원으로, 1인당 최대 1ha까지 지원한다. 전정 비용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올해도 취약 농업인 전정 비용의 50%를 지원해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과, 감을 재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주민,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65세 이상 단독가구 여성 농업인이다. 군은 해당 농가에 3월 중 전정 비용의 50%를 지급할 방침이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 친환경쌀 서울 학교밥상 오른다

초·중·고 47개교에 年 200t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쌀(사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지역 학교밥상에 오른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도봉구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 결과, 담양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지역 초·중·고 47개교에 연간 200t의 담양산 친환경쌀이 공급되게 됐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쌀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1000여t의 쌀을 서울 성북구 제주, 광주 등지 956개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선정은 담양 친환경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



도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모두가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화순군,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유공자 수당 인상 등

화순군이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설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수당 인상은 2023년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훈 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기존 7만 원(월남 참전), 8만원(6·25 참전)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통일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한정 수당으로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다. 2023년에 한해 신청 월에 관계없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나 2023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및 신규 전입자는 신청 월부터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장례용품(친환경 상조 용품 1세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및 장례용품 수령은 사회복지실 복지기획팀(평일 주간)이나 화순군청 당직실(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서 하면 된다. 올해로 관내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섬에 따라 군의 이러한 사업 확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의 명예 선양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강진청자축제장서 5만원 쓰면 5천원 환급

23일~3월 1일...군, 5000만원 규모 지역 상품권 준비

강진군은 제51회 강진청자축제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사은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처음 시도하는 겨울축제이자 코로

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관광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축제장 내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장구에 제출하면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청자 공동전시판매장, 향토음식관, 농특산물 판매장, 종합상황실 환급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000만원으로 행사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일찍 종료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